

10월 교육과정 안내

1. 풀놀이 : 10월 2일(수)
2. 재량방학 : 10월 4일(금)
3. 숲,목공체험 : 10월 7일(월)
4. 수학여행 : 10월 10일(목) - 11일(금)
5. 소풍 : 10월 25일(금)

독후 감상문 - 멋진 민서

- 줄거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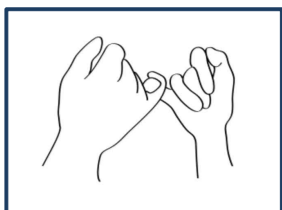
이 책은 어떤 한 아이의 아빠가 어떤 스님에게 아주 중요한 서찰을 받아서 그 서찰을 전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문사로 돌아가셨다. 이제 그 아이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빠도 없으니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빠가 받은 서찰을 기억한 것이다. 아빠가 그 서찰은 아주 중요하니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그 서찰이 중요함을 깨닫고 그 서찰을 전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아이는 차근차근 한문을 풀어나가며 뜻을 알게 되었다. 서찰에 담긴 뜻은 「경천 이란 사람이 전봉준을 판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을 알고 서찰에 써있던 피노리 라는 지역을 찾아다니다 우연히 어떤 절에 들어가서 전봉준을 만나게 되고 서찰을 전하게 된다. 하지만 서찰을 받은 전봉준은 마을에서 관군에게 붙잡혀 사형을 당한다는 이야기이다.

-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

아이가 몇날 며칠을 전봉준을 찾아다니다 드디어 어느 절에서 서찰을 전한다는게 기억에 남는다.

- 책을 읽고 느낀점을 글로 표현하기

이 책은 내가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미있는것 같다. 왜냐하면 공양왕의 마지막 동무들을 읽을 때도 느낀 거지만 나는 의문점이 많은 역사를 창의적으로 소설을 쓰는게 재미있기 때문이다. 또 아직 13살 짜리 애가 아빠가 다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려고 총소리를 듣고 사람의 피를 보고 시체도 봤지만 스스로 끝까지 일을 끝마친 다는게 대단했다. 만일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겁이 나서 그런 일은 시작도 못 하겠지만 그 아이가 시작한 게 너무 용감한 행동인 것 같았다. 그리고 전봉준에게 서찰을 전했지만 나중에 전봉준이 그 서찰을 받고도 그 마을에 가서 잡혀가는 모습 속에서 전봉준의 피투성이가 된 옷을 보며 울부짖는 게 너무 슬퍼보였다.



2학기 우리들의 약속

1. 수업시간 늦지 않기
2. 바른 자세로 수업 참여하기
3. 욕하지 않기
4. 수업 전 정리 정돈 및 준비하기
5. 시비 걸지 않기
6. 친구 따 시키기 않기
7. 수업 전 화장실 다녀오기

5학년 학급신문 『세상의 주인공』을 9월부터 월 1회 발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수업모습과 활동자료들을 학급신문에 담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멋진민서



두레 부다모임지기 다짐

저는 원래 부끄러움이 많은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부다모임지기 후보로 출전을 했는데, 제가 부다모임지기가 되어서 속으로 아주 기뻐합니다.

2학기 부다모임지기로서 승원이 1학기에 다모임을 잘 이끌어갔듯이 저도 부다모임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가진 단점 중 하나인 부끄러움을 깨고 다모임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 부다모임지기 김민서 -

9 월 의 소 식

자율동아리 활동



나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느낀점은 학교에

서 거북이를 키웠는데, 한 마리가 죽어서 승원이네 집으로 옮기게 되었다. 계속 승원이네에서 키워서 거북이를 많이 못봤다. 우리 집에서도 키우고 싶어서 승원이한테 말해 보았는데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가끔씩 승원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땐 거북이도 보고 먹이도 준다. 승원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땐 동아리를 못한다. 지금은 거북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저번에 승원이네 집에 갔을 때는 승원이가 이미 거북이 밥을 주었는데 내가 밥을 더 줘서 승원이게 혼났던 적이 있었다.

【 유하랑 】

부모님께 감사 편지

엄마, 아빠 나 시언이에요. 제가 항상 부모님 곁에서 잤었는데 불



편하다고 말하지 않고 같이 자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항상 슬라임 재료를 사는데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을 때 엄마한테 말하면 다음날이나 주말에 사주시는데 평일에 일하시고 힘드셔도 저의 재미를

위해서 힘든 몸 일으켜서 문구점 데려가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아빠, 저랑 오빠랑 무대 나갈 때면 무대 준비할 때 무대 안무 봐주시면서 조언해주셨잖아요! 노래 듣고 나서는 “의상 필요하지 않아?” 라고 물어봐주시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날에 바로 가서 저랑 오빠 옷 스타일 맞춰 주셨던 기억도 나요. 아빠 가격이 비싸도 그냥 상관없이 카드 긁어 주시는데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전에는 너무 부모님을 힘들게 한 거 같아요. 앞으로 더욱 잘하겠습니다. 사랑 하고 감사합니다.

【 주시언 】

엄마, 아빠 고마워, 항상 날 지켜 봐주시고 도와줘서 고마워 엄



마 내가 맨날 고집만 피우고 짜증내서 미안해, 내 마음대로 할라 그러고. 그러다 안되면 울고, 짜증내서 미안해. 아빠 내가 아빠한테 뭘 많이 사달라고 한 거 같애! 내가 그 버릇을 고칠게. 그리고 내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게. 엄마, 아빠 아프지마!

엄마, 아빠 사랑해

【 여소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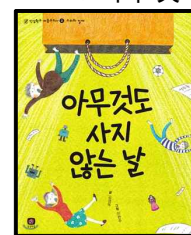
여름 방학을 마치고

나는 여름방학에 동생이랑 아빠랑 캠프를 갔다. 캠프장에 도착해서 우리자리로 갔는데 자리가 좋았다. 앞에 계곡도 있고 지붕도 있었다. 아빠가 예약 해둔자리였다. 첫날은 계곡에 발을 담갔다. 그리고 좀 있다가 물놀이 하러 물놀이장에 갔다. 미끄럼틀도 타고 빵도 먹었다. 텐트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저녁이 다가오자 고기 구울 준비를 했다. 고기를 구워 한입을 먹으니 정말 맛있었다. 고기를 다 먹고 자러 텐트로 들어갔다. 자고 있는데 아빠가 나를 매트 밖으로 밀어서 잠을 못 잤다. 다음날에 아침을 먹고 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안가고 쉬었다.

【 유하랑 】

독서 감상문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줄거리 : 처음에 레연이라는 아이가 민호라는 아이 집에 가서 채소를 주

고 떠났다. 떠난 뒤에 민호 아빠랑 마트에 가서 잔뜩 사오니 엄마에게 잔소리를 듣고 저녁을 엄청 먹었다. 다음날 민호는 문방구에서 블루건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살때 똥박사가 돈 빌려 준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바로 거절을 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엄마가 지금 TV에 나오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날’을 보고 다다

음주 토요일에 실천하자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되자 갑자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었다.

한줄평 : 돈을 막쓰면 안되겠다.

책을 읽고 느낀점 :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제가 이책을 읽으면서 느낀점은 “돈을 물 쓰듯이 막 쓰지 말고 필요할 땐 쓰면서 절약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어릴 때 민호랑 민호 아빠처럼 필요 없는 물건에 과소비를 하니깐 꼭 사보고 싶었던 물건은 돈이 없어서 후회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어린이가 학교 준비물 살 돈을 모두 오락기에서 오락을 하다 돈이 없어서 선생님 이랑 엄마, 아빠에게 혼나는 이야기가 끔찍해서입니다. 마지막은 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잘 보셨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걸 정리를 하면 돈을 지금 막 쓰면 어른이 됐을 때 살기가 힘드니 아끼자는 겁니다.

【 김하늘 】

자율동아리 활동



나는 자율동아리인 「베이킹 만들기」를 하기 전에는 엄청 기대를 했다.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 베이킹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다. 그래서 솔직히 흥미가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다. 그래도 점점 하면서 자신

감을 가지게 됐고 친구들을 열심히 돕다보니 다시 흥미가 생겼다.

만들면서도 재미있고 먹을 때도 재미있었고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놀면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더 재밌었다. 그리고 시간도 넉넉해서 정말 편해서 좋았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베이킹을 하시고 계신 분들께 학습을 목표로 체험학습을 갔다.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고 알려주셔서 아주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이때까지 베이킹을 하면서 했던 활동 중에 체험학습이 제일 재미있었고 좋았다. 이유는 케이크를 만드는 법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왔기 때문이다.

【 심나현 】

풋살경기

풋살대회를 나갔다. 나는 교체 선수로 뛰었다. 예선 경기는 우리 학교가 이겼다. 그러나 나는 예선 경기에 뛸 수 없었다. 예선 경기는 상관초등학교를 3:0으로 이기고 두 번째 경기 봉성초등학교와는 1:1로 비겼다.

드디어 본선이다. 우리 상대는 삼례초등학교였다.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교 유니폼 색이 비슷해서 팀조끼를 입었다. 조끼를 입은 상대팀 학교가 더 잘했다. 왜냐하면 색이 달라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우리학교가 한 골을 실점하게 되었다. 계속 경기를 했으면 승부차기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경기

가 끝날 무렵 삼례초가 한 골을 더 넣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났다.

이번에도 나는 경기에 뛸 수 없었다. 경기가 끝나고 선생님과 중화요리를 먹었다. 점심을 먹고 학교로 돌아와서 하교를 하게 되었다.

【 김영진 】

처음 예선전 때는 상당히 두근거렸다. 바로 탈락할까 조금 긴장했다. 그런데 필호와 나의 호흡으로 3:0 으로 처음팀을 이겼다. 기분이 좋아서 탄력을 받아서 했다. 그 팀과 대결해 1:1로 비겼다. 그 팀은 잘 했다. 하지만 우리 팀은 전판에 3:0으로 이겼고 대결한 팀은 3:1로 이겨서 그 쪽 팀은 1실점 때문에 아쉽게 졌다. 이겨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기분이 더 좋은건 상대방 잘하는 공격수가 나를 칭찬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선을 시작했다. 본선은 더더욱 떨렸다. 민서가 긴장을 많이 해서 패스 명중률이 떨어져 계속 실수를 해 한 골을 먹었다. 민서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서 성준이형으로 교체해 주었다. 성준이형으로 바꾸고 내가 바로 골을 넣었다. 하지만 한 골을 먹어서 2:1로 지긴 했지만 좀더 열심히 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자책을 좀 했다.

결국 우리가 만난 팀이 우승했다고 했다. 저번에 나갔을 때 4학년이라 조금 망설여서 못했고 이번에는 본선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내년에는 꼭 3등 안에 들고 싶다

【 김의찬 】

단축 마라톤

단축 마라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3등을 했습니다. 전에는 10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등을 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뛰면서 쉬어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는 자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3등을 했습니다.

【 권윤슬 】

영화 「원더」를 보고



줄거리

정리 : 어기라는 아이는 얼굴

이 괴물 같다고 사람들이 놀려대서 항상 헬멧을 쓰고 엄마랑 홈스쿨링을 하다가 5학년 때 학교에 입학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애들이 욕해서 어기가 힘들어 했지만 그 이후 썸머, 잭 월이라는 애들이랑 좋은 친구가 되고 어기도 더 이상 얼굴을 숨기고 다니지 않았다.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과 이유 : 어기가 용기내서 일반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가족들이 어기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장면 (그림 삽입)

영화를 보고 느낀점 : 원더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많아서 글로 정리가 안 될 거 같지만...내가 어기라면 용기가 안 나서 엄마한테 계속 홈스쿨링하면 안 되냐고 조를 거 같은데 어기는 그러지 않고 용기 내어 학교에 갔다. 난 어기

의 그런 부분이 멋지다고 느꼈다. 더욱더 헬멧도 벗고 그 많은 애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학교에 당당히 가다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용기도 안 났을 거 같은데... 그리고 어기의 곁에서 꼭 지지하고 응원해준 가족들도 감동적이었다. 덕분에 어기가 더 이상 헬멧으로 얼굴을 감투지 않고 다니는 용기도 갖게 된 거 같다.

어기가 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족들이 곁에서 믿고 지지해준 덕이 아닌가 싶다. 우리 학교에 어기 같은 친구가 오면 배려와 존중을 해줄 것 이다.

【 박지은 】

새 교과서를 받고



새 교과서를 받을 때 나는 없었지만 책상위에 교과서들이 있는게 뭔가 포만감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다. 또 표지 그림이 점점 이뻐지는거 같고 뒷면에 이름을 쓸때 내가 없어서 소현이가 내 이름을 대신 써줘서 고마웠지만 조금 못써줘서 아쉬웠다.

내가 쓰면 더 좋았는데..... 그래도 고마웠다. 그리고 1학기 교과서를 소현이가 가려담기에 재활용 한 줄 알았는데 시연이가 재활용 창고에 옮겨주어서 고맙다.

【 김서하 】

글을 요약해요

- 열거 구조의 글을 써봅시다 -
전자기계는 우리 생활에 도움

을 줍니다. 전자기계 세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핸드폰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작업, 놀이, 대화 등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지만 교통, 시야, 집중 방해로 하므로 꼭 필요한 때만 사용을 바랍니다.



컴퓨터는 마우스,

키보드로 조작해 다양하게 할 수 있어 핸드폰을 크게 만들 것 같지만 컴퓨터가 먼저 만들어 졌습니다. 노트북이라는 휴대용도 만들어 편의성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집중방해를 유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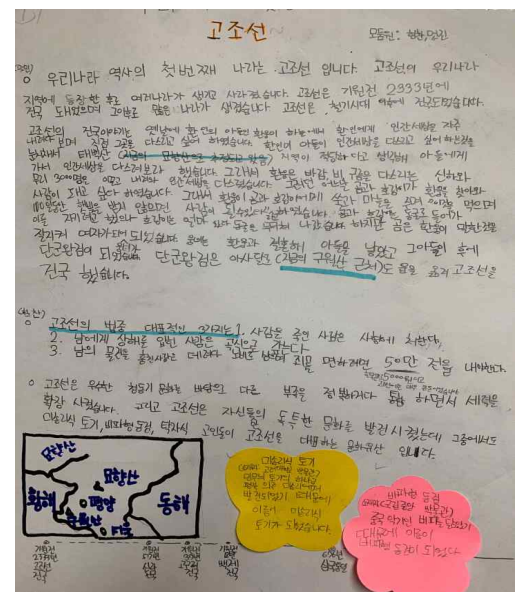
TV는 오래 보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는 거짓말 인 것 같습니다. 리모컨으로 조작하며 자신이 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도 되고 음성도 지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전자기계가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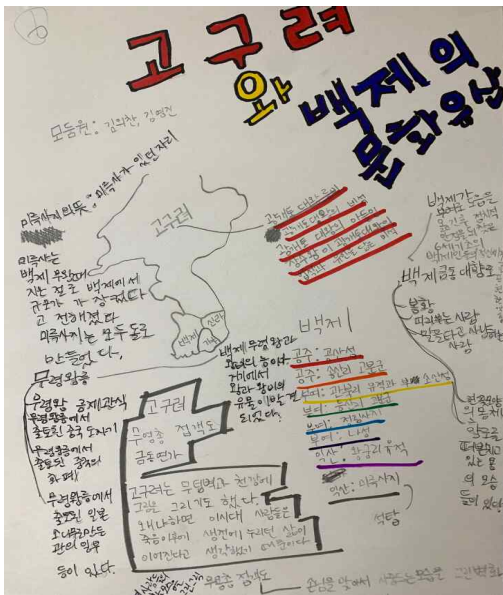
【 조원택 】

9월에 이런 일이 . . .

역사공부



【 힘찬, 멋진 】



【 김의찬, 김영진 】

9월에 이런 일이 . . .

우리학교 크리스와 복실이



삼우초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크리스, 복실이에 관한 글입니다. 먼저 크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는 좀 온순한 성격이고 많이 짖지를 않습니다. 항상 꼬리를 많이 흔들지도 않습니다. 취미는 개구멍을 파는게 취미입니다. 이제 복실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실이는 약간 활발할 성격이고 많이 짖습니다. 꼬리를 많이 흔들고 취미는 집돌이입니다. 이제 크리스와 복실이의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우유를 좋아하고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와 복실이의 공통점, 다른점을 알아보았는데, 형제지만 공통점 보다는 다른점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래도 둘은 애교가 많아 귀엽습니다.

【 김하늘 】

9월에 이런 일이 . . .

연못 그리기



연못그리기 미술활동은 연못을 잘 그리기 위해서 집중을 했던것 같고 연못을 어떻게 그릴까 생각을 하니 조금씩 미술활동에 빠져드는 것 같다

미술을 하면 집중을 해서 집중력도 키우고 어떻게 그릴까 생각을 하며 창의력도 키우고 자기만의 그림도 만들고 작품도 만들고 하니 미술활동이 좋은것 같다

연못그리기를 하고 느낀점은 재미있었던것 같았고 무엇보다 미술을 해서 좋았다. 연못그리기를 하고 색도 넣으니 화사해서 좋았다. 그리고 자신만의 작품이 만들어져서 뿌듯하고 좋았다

【 임필호 】

9월에 이런 일이 . . .

재밌는 과학활동

학교에서 나는 심심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민서가 나한테 왔다. 그래서 장난으로 과학실에서 무언가를 만들자고 했다. 근데 민서가 같이 하자고 해서 선생님께서 동의를 구하고 과학실로 가고 있



는데 하랑이가 같이 해도 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았다. 우리는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함께 과학실로 갔다.

과학실에서 “뭐 만들지?” 생각하다가 자동차를 만들기로 했다. 준비실에서 재료를 챙겼다. 재료는 모터, 바퀴, 건전지, 전선, 사각 플라스틱 상자, 고무줄이 필

요했다. 다 조립하고 나서 작동시켰더니 앞으로 잘 갔다. 민서가 무한빛 상자를 만들려고 해서 도와주었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동아리 시간을 조금 빼서 만들기를 완성했다. 작동시켰더니 타는 냄새가 나면서 엄청 뜨거웠다. 알고 보니 선이 잘못 연결 돼서 뜨거웠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연결한 후 작동시켰는데 빛이 안 들어와서 건전지를 만졌는데 너무 뜨거웠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시 고쳐 보았는데 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거울이 설치되어서 빛이 안보였다. 그래서 거울을 바꿔 끼우니까 잘 보였다. 무한으로 빛을 반사하니까 미래의 터널 같았다. 그리고 다음날 자가 발전기를 가져와서 조립해서 작동 시켜보니 전기가 만들어 졌다. 그래서 자가 발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모터가 작동했다. 근데 고무줄을 끼우면 멈춘다. 그래서 포기하고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태양도 없고 태양전지도 고장났는지 작동이 안됐다. 일주일 후 내가 물로켓을 만들어서 가져왔다. 바로 발사대에 끼워서 발사했다. 완벽한 성공이다. 일주일 후 마니또 선물을 뭐줄까 생각하다가 내가 직접 만든 숨쉬는 화분과 선인장을 심어서 챙기고 내가 직접 만든 십자가를 챙기고 내가 만든 딱풀 비누를 함께 하랑이에게 주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재미와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들고 싶다. 내 꿈은 대단하지는 않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정승원 】

9월에 이런 일이 . . .

흡연예방교육

내 생각으로 남자들이 한번씩 피우는게 담배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은 아니다 우리 아빠도 피우다가 끊었다. 담배를 피우는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수업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무서웠다. 담배를 피우면 몸 전체에 피가 안돌아서 발이 썩고 눈이 백내장에 걸려 흐릿하게 보인다. 임신한 사람은 특히 피우면 안 된다. 이유는 자애가 있는 아기가 태어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면 암에 걸리는데 왜 피우는지 모르겠다.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다.

【 김승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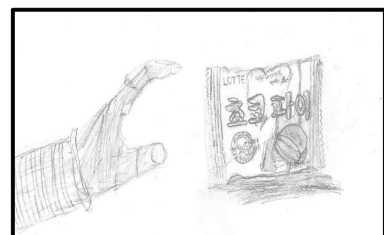
9월에 이런 일이 . . .

미술수업



5학년 미술은 흥미로웠다.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해서 재미있었다.

4B 연필로 자기 손도 그려보고 못쓰는 잡지, 신문으로 미술 활동도 하고 밖에서 주변 환경도 그



리고 나무도 그려 보았다.

특히 못 쓰는 종지로 하는 미술 활동은 정말 인상 깊었다. 못쓰는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서 더욱 인상 깊었다.

이번에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재활용품으로 재미있는 미술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 권윤슬 】

1인 1역 할(2학기)

- ▶ 교실바닥 : 힘찬민서,
- ▶ 실내화 보관함 : 정승원
- ▶ 약품상자 보관함 : 유하랑
- ▶ 휴지통 : 조원택, 심나현
- ▶ 사물함 : 권윤슬
- ▶ 창 문 : 김하늘
- ▶ 우 유 : 멋진민서
- ▶ 테라스 : 임필호
- ▶ 칠판 : 김서하
- ▶ 세면대 : 김승언
- ▶ 보드게임 보관함 : 여소현
- ▶ 신발장 : 주시언
- ▶ 책 장 : 박지은
- ▶ 출입문 : 김영진, 김의찬

교실 좌석 현황

필호	하늘	시언	지은
나현	원택		
승원	의찬	소현	힘찬 멋진
영진	승언	혜나 서하	하랑 윤슬
칠 판			

학급신문 발행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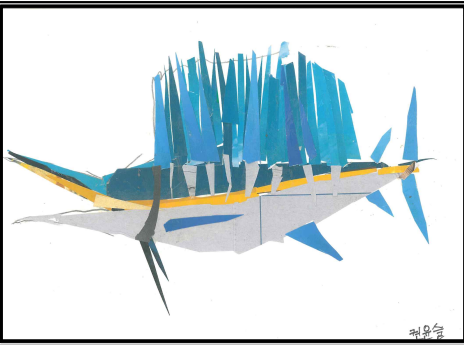
나답게

평범하기보다는 유별나게
유별나기보다는 각별하게
각별하기보다는 특별하게
특별하기보다는 비범하게
비범하기보다는 나답게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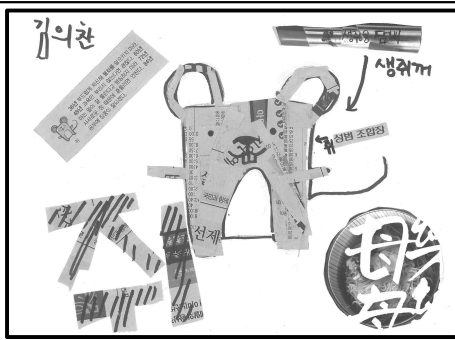
작은 행복들은 항상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9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급에 다양한 제안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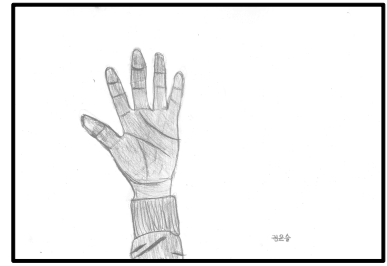
<학생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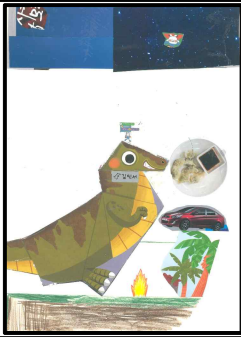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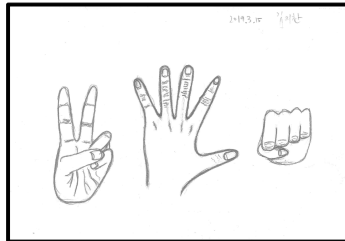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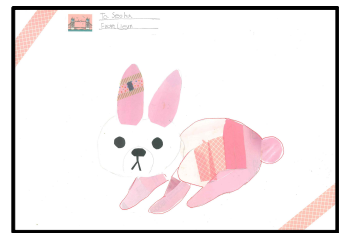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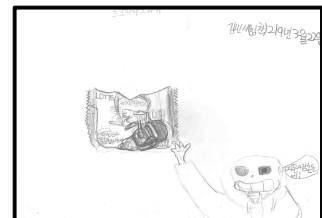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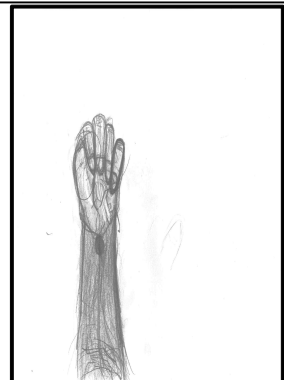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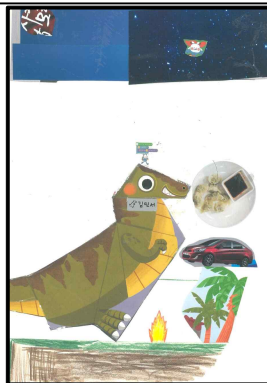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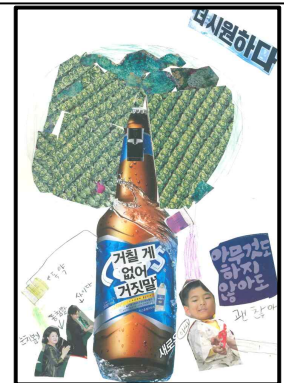
12



13



14



15